

>>> LG CNS 라틴댄스 동호회 '무풍'

춤바람 열기로 업무도 신바람 라틴댄스로 스트레스 '훨훨'



“따따라 땀땀!”

수요일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각. 직장인들이 한창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할 무렵 강남역의 한 바는 땀에 흠뻑 젖은 젊은이들의 움직임으로 활기가 넘친다. 이들은 바로 LG CNS 라틴댄스 동호회 '무풍(舞風)'의 회원들.

답답한 정장을 벗고 간편한 티셔츠와 바지, 스커트로 갈아입은 '무풍' 회원들은 웃음과 땀이 범벅이 된 채 춤을 춘다.

LG CNS 라틴댄스동호회 '무풍'은 말 그대로 '춤바람'이라는 뜻. 순수 우리말을 좀 더 강렬한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 한자로 변환한 것이다.

'무풍'은 2003년 춤을 좋아하는 LG CNS 직원들 몇 명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로 현재 1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초창기 '무풍'은 사내 동호회 성격을 띠며 LG CNS 직원들만으로 구성됐으나 체계적인 강습과 가족 같이 친밀한 동호회 분위기가 전 LG 계열사로 알려지면서 다른 LG 계열사 직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무풍'의 장점은 우선 '몸치'도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풍'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완수 대리는 “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즐길 수 있는 준비만 돼 있다면 춤을 얼마나 잘 추느냐 하는 것은 '무풍' 활동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매주 한 번의 정기모임 이외에 동호회 초창기 회원들이 주축이 돼 신규 회원들

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댄스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풍’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가족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사원부터 부장까지 다양한 직급이 함께 어우러진 ‘무풍’은 회원들끼리 과감하게 ‘계급장’을 떼고 서로의 닉네임을 부르고 있다.

‘김 부장님’, ‘장 과장님’은 없다. 단지 ‘투영(too young)’, ‘웬디’, ‘웰던(welldone)’ 등 재미있고 기발한 닉네임들만 오간다. 동호회 회원인 김두영 대리는 “직장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닉네임을 부르며 함께 춤추고 땀 흘리니 서로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며 “특히 각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만남이 가능해져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해 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준다”고 소개한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회복은 덤이다.

엄준호 대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 정기 모임에 참여 한다”며 “피곤하고 온 몸이 빠르다다가도 2시간 동안 신나게 춤추면서 땀을 짖 빼고 나면 그렇게 개운하고 기분 좋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동호회에 대한 애착과 강한 열정을 가진 회원들이 모인 만큼 ‘무풍’은 또한 커플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동호회 총무인 김완수 대리는 “올 한 해에만 ‘무풍’에서 무려 5쌍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동호회 분위기가 가족 같고 좋아하는 춤을 함께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커플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귀띔한다.

김두영 대리도 ‘무풍’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케이스다. 김 대리는 첫 2년 동안 김 대리는 지금의 아내와 동호회 동기 사이로 지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중요한 공연에 댄스 파트너로 함께 참가하게 되면서 사이가 급진전 됐다.

두 사람은 마침내 작년 11월 많은 ‘무풍인’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앞으로 ‘무풍’은 더욱 거센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무풍’은 단순히 취미를 함께 하는 동호회 수준에서 벗어나 각종 대회와 행사에 참가해 댄스 실력을 선별 예정이다.

김완수 대리는 “목표를 세우고 회원들이 함께 이뤄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참 많다”며 작년 단체 부문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한 ‘제3회 2006 코리아 살사 컴페티션(Korea Salsa Competition)’을 예로 들었다.

‘무풍’은 올 9월 개최되는 유명 국제 살사 댄스 경연 대회인 ‘제 5회 코리아 살사 콩그레스(Korea Salsa Congress)’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